‘자이니치’ 담론과 아이덴티티

이한정*
ehj@smu.ac.kr

Contents

Ⅰ. 여는 글: ‘자이니치’란 무엇인가?
Ⅱ. 1980년대 『계간 삼천리』와 ‘자이니치’
Ⅲ. 1990년대 『계간 청구』와 ‘자이니치’
Ⅳ. 2000년대 ‘자이니치’라는 자기규정과 일본사회
Ⅴ. 닫는 글: 국민국가 속 ‘자이니치’의 향방

Abstract

Stepping into the new millenium an important and surprising change has happened in the commun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we have examined above, the issues of 'Zainichi' can be described as a present progressive form in the making until today interacting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in Japan as well as with the identity of 'Zainichi'.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is that the term, 'Zainichi' emerged from the community itself and is widely used in the community.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questioned the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s in Japan by highlighting 'Zainichi' without 'North Korean' or 'South Korean' and are endeavoring to re-establish their identity through the struggles and endeavors. In this respect 'Zainichi' can not be undermined as a movement of a minority group or diaspora in Japan, but is to be considered as a term closely related to the claim of the Korean people in Japan to find their identity.

Key Words : 在日朝鮮人、在日、日本社会、アイデンティティ、変容
(Korean residents in Japan, Japanese society, identity, transformation)

* 상명대학교 일본어문학과 전임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7-A0058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Ⅰ. 여는 글: '자이니치'란 무엇인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안을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재일한국인(在日韓国人), 재일한국·조선인(在日韓国・朝鮮人)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1]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조선인'이나, '한국인' 나아가 '한국·조선인'을 소거한 '재일(在日)'이라는 말이 파생되었다. '재일'의 일본어 음은 '자이니치'이다. '자이니치'라는 말은 현재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이나 '재일한국인'을 가리키는 말로써 통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재일동포', '재일교포'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자이니치'라는 호칭이 생성・유포되는 과정을 '재일코리안'[2]이 쓴 글을 통해 고찰하면서, 이 호칭이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어떤 연동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 본다. 분석대상으로는 재일코리안이 발행한 주요 잡지에 수록된 글과 일부 저서가 해당된다. 재일코리안 필자에 의해 '자이니치'라는 용어가 어떻게 재일코리안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새롭게 부상되는가, 그 새로운 호칭 사용의 흐름과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

'자이니치'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자이니치'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한국인에

---

1) 서경식은 2005년에 일본에서 간행된『디아스포라 기행』에서 복수의 호칭에 대해 "현재의 일본사회에서는 '재일한국인'이라는 호칭과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이 애매하게 뒤섞여 존재하는데, 후자를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혹은 북조선으로 줄임) 출신자' 혹은 '북한 국민'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동시에 '재일한국·조선인'이라든가 '한국어'라는 말도 자주 쓰이는데 이들 용어는 모두 재일조선인이 형성된 역사에 대해 무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과 '한국'은, 전자는 '민족'을 후자는 '국가'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관념의 수위가 다르다. 혼란은 이와 같은 개념상의 구별이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민족'과 '국민'을 동일시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 단일민족국가 환상이 뿌리 깊게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서경식, 김혜신 옮김(2006)『디아스포라 기행』돌베개, p.16).

2) 이 글에서 필자는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을 포괄하는 용어로 최근에 부상되는 '재일코리안'을 사용한다. 이 호칭은 '자이니치' 이후에 출현한 용어로, 자이니치가 보통명사로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뜻하므로, 이와 구분해 일본사회에서 '자이니치'와 구분해 사용되고 있다. 앞서 각주1)에서 서경식이 지적한 '재일조선인'이란 호칭에 담긴 '역사성'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 글은 '자이니치' 호칭 사용의 흐름을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관련해 추적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재일코리안'이란 용어로 논지를 이끌어 가기로 하겠다. 다만 인용하는 자료에 '재일조선인' 등 다른 호칭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용 자료 분석에서는 원문의 호칭에 따른다. 또한 '자이니치=재일조선인'과 다른 차원에서 '재일코리안'이라는 호칭이 최근 어떻게 부상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한 특정 버전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버전업된 '자이니치'는 스스로 어떠한 의미를 발하며, 이미지화되며, 이야기성을 함의한다. 1992년에 간행된 『'자이니치'를 살아간다라는 것은』의 서론에서 윤건차는 '자이니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 책 제목에 붙은 '자이니치'라는 말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주로 일본에 사는 조선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단지 '조선' 적(籍)과 '한국' 적이라는 국적(표시)의 차이를 넘어선 재일조선인을 총칭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가 지니는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일정한 사상과 이데올로기 내지는 역사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었다. 실제 '자이니치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단지 삶을 지속한다는 바람뿐만 아니라 인간해방에 대한 뜨거운 사상이 가로놓여 있다. 게다가 현실에서 '자이니치'는 그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 존재임을 강요당해, 오늘날 세계사의 전환기에서 국가 · 민족 · 개인의 모든 문제와 연결되는 모순을 집약적으로 안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3]

'자이니치'라는 말은 재일코리안 '젊은 세대'가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내지는 역사적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로써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조관자가 지적하듯이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이 "재일본 조선인 사회의 집단적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각적으로 호명"되었으며, 이는 "재일조선인 지식인들이 '조국=북한'의 정치적 지도에 귀속되지 않고서 '재일'의 존립 문제를 자율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1970년대 들어서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4] 다시 말해 1970년대에 '재일조선인'이 '한국'이나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와 거리를 두기위해 사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이니치'라는 호칭도 약간 뒤늦은 시기에 민족이나 국가를 표시하는 '조선인'이나 '한국인'을 지운 용어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재일조선인' 혹은 '재일한국인', 나아가 '재일한국 · 조선인'이라는 호칭에서 '조선인' '한국인' '한국 · 조선인'을 생략한 '자이니치'는 '민족'과 '국가' 표시를 소

3) 尹健次(1992)『「在日」を生きるとは』岩波書店, p.3.
4) 조관자(2011)「'민족주체'를 호출하는 '재일조선인'」『일본학』31, 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 p.20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거한 호칭으로서 부각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에 사는 조선인을 가리키는 말"로써 '자이니치'라는 말은 과연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을까. 일본인이 이 말을 사용했을까, 아니면 '재일조선인'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칭했을까. '자이니치'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윤건차의 지적대로 이 말은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그 만큼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는 "정치적 존재"로 자리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지시하는 용어이기도 했다. 재일코리안에 의해 일본에서 출판된 저작물 중에서 '자이니치'란 말이 사용된 책은 아래와 같다.

〈표1〉 재일코리안이 집필한 단행본 표제에 '자이니치'가 사용된 예(연도순)

발행년월	저자	제목	출판사	기타
1981.12	金石範	「在日」の思想	筑摩書房	再刊 2001년 講談社
1985.1	竹田青嗣	<在日>という根拠	国文社	再刊 1995년 筑摩書房
1986.11	金時鐘	<在日>のはざまで	立風書房	再刊 2001년 平凡社
1992.6	尹健次	「在日」を生きるとは	岩波書店	-
1994.9	金賛汀	在日という感動	三五館	-
1996.3	姜在彦 외	「在日」はいま、	青丘文化社	-
1996.5	姜在彦	「在日」からの視座	新幹社	-
1997.6	徐京植	分断を生きる:「在日」を超えて	影書房	-
1999.11	朴一	<在日>という生き方	講談社	-
2002.1	玄善允	「在日」の言葉	同時代社	-
2004.3	姜尚中	在日	講談社	문고판 2008년 集英社
2004.4	金賛汀	在日 激動の百年	朝日新聞社	-
2004.6	鄭大均	在日 強制連行の神話	文芸春秋社	-
2004.7	朴鉄民 편	在日を生きる思想:『セヌリ』対談集	東方出版	-
2004.8	金石範	国境を越えるもの:「在日」の文学と政治	文芸春秋社	-
2005.3	姜尚中	在日 二つの「祖国」への思い	講談社	-
2006.8	鄭大均	在日の耐えられない軽さ	中央公論新社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008.10	小熊英二・姜尚中	在日一世の記憶	集英社	-
2010.5	金賛汀	韓国併合百年と「在日」	新潮社	-

1981년 김석범이 '자이니치'란 말을 자신의 저작물 타이틀에 처음 붙였다. 이후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재일코리안 저술가의 책에 '자이니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1994년에 발행된 김찬정의 『자이니치라는 감동』을 제외하고는 2004년에 강상중이 『자이니치』를 출판하기 이전까지는 '자이니치'라는 말에 < > 혹은 「 」의 특정 부호가 붙어서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강조되었다. 김찬정은 책의 표제에서는 '자이니치'에 특정 부호를 붙이고 있지 않으나, 본문의 각 장 타이틀에서는 「 」를 붙이고 있으며, 본문 서술에서는 주로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4년 강상중에 의해 '자이니치'라는 말에 붙은 특정부호가 사라지기까지 '자이니치'라는 용어를 재일코리안들 스스로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자이니치'가 재일코리안을 지칭하는 말로 공표되는 과정에는 어떤 문제들이 상충되고 있었는가를 좇아 보면서 재일코리안에 의한 '자이니치' 담론이 그들의 아이덴티티와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아직 '자이니치'라는 호칭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자이니치'라는 호칭이 재일코리안 자신들에 의해 생성되어 일본과 한국 사회로 퍼져나간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재일코리안이 호칭을 통해 새로운 아이덴티티 창출을 도모했다는 점을 고찰할 것이다.

Ⅱ. 1980년대 『계간 삼천리』와 '자이니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자이니치'라는 말이 '일본에 사는 조선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 무렵에 일본에서 재일코리안 사회를 대변하는 주요 잡지로 1974년에 창간된 『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를 들 수 있다. 재일코리안이 발행하는 다수의 잡지 중에서도 『계간 삼천리』는 1987년 5월에 제50호를 마지막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 종간하기까지 13년 동안 일본사회에서 재일코리안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디어였다. 이 잡지의 창간 편집위원은 재일코리안 1세 김달수(작가), 이철(시인), 김석범(작가), 윤학준(평론가), 박경식(역사가), 이진희(역사가), 강재언(역사가)이었다. 매호마다 특집을 꾸미고 있으며 편집위원들에 의한 연재, 젊은 연구자의 연구노트와 시론이 게재되었고, 젊은 재일코리안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본 지식인들이 필진으로 다수 참가하였다. 이 잡지는 1970, 80년대 일본과 '조선', 한국과 북한의 심각한 대립 상황 속에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일본 패전 후에는 '일본사회'의 차별과 '조국 분단'이라는 이중의 질곡 아래에서 살아야만 했던 1세대 지식인들이 '자이니치'로서 전력을 다해 달려온 발자취를 남긴 하나의 커다란 기념탑"[5]으로 평가받고 있다. 『계간 삼천리』가 창간호의 특집으로 「김지하」를 꾸민 것은 당시 한국에서 정치탄압을 받던 시인 김지하의 구명운동이 재일코리안 사회에 커다란 파급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재일코리안들이 조국과의 관련 하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의지가 이 창간호 특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총 50호의 특집에서 눈에 띄는 주제는 다음에 열거하는 대로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다. 1976년 11월 제8호 특집 「재일조선인」, 1977년 11월 제12호 특집 「재일조선인의 현 상황」, 1979년 5월 제18호 특집 「재일조선인이란」, 1980년 11월 제24호 특집 「지금 재일조선인은」, 1981년 11월 제28호 특집 「재일조선인을 생각한다」, 1983년 8월 제35호 특집 「오늘날의 재일조선인」, 1984년 제39호 특집 「재일조선인과 외국인등록법」, 1985년 11월 특집 「해외 재주 조선인의 현재」, 1986년 5월 특집 「80년대 재일조선인은 지금」, 1987년 5월 특집 「재일조선인의 현재」 등이다.

『계간 삼천리』는 창간 2년째인 1976년에 '재일조선인' 특집을 마련한 이후 종간되기까지 거의 1년 간격으로 '재일조선인'에 관한 특집을 꾸미고 있다.[6] 그러

5)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在日コリアン辞典」編纂委員会編(2010)『在日コリアン辞典』明石書店, p.86. 이 항목 필자는 佐藤行信.

6) 최범순에 의하면 『계간 삼천리』가 재일조선인 관련 특집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했던 것은, 1970년대 접어들어 일본 출생 재일조선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1982년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 시행되어 재일조선인들이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는 재일조선인 내외의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다(최범순(2009)「『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의 민족정체성과 이산적 상상력」『일본어문학』41, 한국일본어문학회, 2009, p.40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나 특집 제목에 '자이니치'란 용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 특집에 게재된 글 가운데 최초로 '자이니치'란 말을 사용한 사람은 김석범이다. 1979년 제18호 특집 「재일조선인이란」에는 김석범의 「'자이니치'란 무엇인가」가 실렸다. 여기에서 김석범은 '자이니치'라는 국외에 정주하는 상황과, 거기에서 발생한 새로운 성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이니치'의 의미를 창조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일조선인은 '자이니치'를 빼고는 매사를 볼 수 없다. 그것은 '자이니치'를 통해서만 조국과 연결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7]라고 쓰고 있다. 이 글에서 '자이니치'는 재일코리안을 대신하는 호칭이라기보다는 '일본에 거주한다'라는 보통명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석범의 글은 '자이니치'를 강조함으로써 재일코리안들의 삶을 "주체적"이며 "창조적"으로 파악하면서 "조국"과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보통명사 '자이니치'는 재일코리안의 처지를 재고하는 의미를 띤다. 『계간 삼천리』의 필자 가운데 '자이니치'란 말을 제목에 붙인 예는 아래와 같다.

〈표2〉『계간 삼천리』의 글 제목에 '자이니치'가 사용된 예(연도순)

발행년월/호	필자	표제	특집 제목
1979.5/18	金石範	「在日」とはなにか	在日朝鮮人とは
1980.11/24	孫仁一 외	私にとって「在日」とは	いま在日朝鮮人は
1982.5/30	梁永厚	「在日」のシャーマン	朝鮮の芸能文化
1983.8/35	李孝子 외	<座談会>いま「在日」を考える	今日の在日朝鮮人
1984.8/39	文京水	「在日」についての意見	在日朝鮮人と外国人登録法
1984.8/39	李相鎬 외	地域運動の中から「在日」を考える	在日朝鮮人と外国人登録法
1985.5/42	姜尚中	「在日」の現在と未来の間	在日外国人と指紋押捺
1985.8/43	梁泰昊	事実としての「在日」	朝鮮分断四十年
1985.11/44	姜尚中	方法としての「在日」	海外在住朝鮮人の現在
1986.5/46	鄭潤熙 외	<手記>いま「在日」を考える	80年代・在日朝鮮人はいま
1987.5/50	姜尚中 외	「在日」をいかに生きるか	在日朝鮮人の現在
1987.5/50	李一世	「在日世代」の結婚観	在日朝鮮人の現在

이 가운데 제42호에서 제44호까지 강상중과 양태호 사이에서 벌어진 '자이니

7) 金石範(1979) 「「在日」とはなにか」『季刊三千里』第十八号, p.3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치' 담론이 당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강상중은 '방법'으로서 '조국'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자이니치'의 처지를 말한 반면에, 양태호는 일본에 거주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본 '정주자'로서의 '자이니치'의 위치를 강조하였다.[8] 두 사람 간의 논쟁에서 '자이니치'라는 용어는 김석범의 '자이니치'와는 다른 재일코리안을 지칭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한편『계간 삼천리』제50호에서는 타이틀에 '자이니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강재언의 「'재일조선인'인 것의 의미」라는 글이 '자이니치'라는 용어의 등장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강재언은 당시 통용되기 시작한 '자이니치'란 용어 사용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재일조선인'을 타이틀에서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970년 중반 이후의 재일조선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변화는 점차 '자이니치'에 악센트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자이니치'라는 용어는 마치 공기나 물과 같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어느 기존의 민족 단체가 가한 집단적 · 조직적 압력에 저항해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없이 이 말을 정착시킬 수는 없었다. 정말로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9]

'자이니치'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현실에 대해 강재언은 본국에 대한 귀속의식이 강한 재일코리안 1세가 점차 노령화되고,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코리안 2세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양상 속에서 "기존의 민족 단체", 즉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서 보였던 '자이니치'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과 대립하는 가운데 '자이니치'란 용어가 점차 재일코리안을 가리키는 의미를 띠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1980년대 '자이니치'라는 용어는 재일코리안의 세대 변화와 일본 '정주' 의식, 혹은 조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일코리안들이 스스로의 처지가 바뀌어 가는 과정을 의식하면서 차츰 자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이니치'의 일반적인 의미 '일본에서 거주한다'가 과연 자신들에게 어

8) 두 사람의 논의를 소개한 최범순은 "강상중의 인식은 기존의 '조국' 편향과는 분명히 다른데 그 차이는 재일조선인을 '국경을 뛰어넘는 생활공간과 인식'을 지닌 존재로 규정한 것에 기초한다. 강상중은 새로운 민족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산(離散)상태=디아스포라'적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재일조선인이 지니는 특수성을 보편성과 연결시켜내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앞의 논문, p.441).

9) 姜在彦(1987)「「在日朝鮮人」であることの意味」『季刊三千里』第五十号, p.4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문하는 과정에서 '자이니치'라는 말이 부상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행본에서는 1981년 김석범의 『'자이니치'의 사상』을 필두로 1985년에는 재일코리안 평론가이자 연구자인 다케다 세이지의 재일코리안 문학론인 『<자이니치>라는 근거』가 출판되었다. 그리고 시인 김시종의 『<자이니치>의 틈바구니』에서도 1986년에 발간되었다. 김시종은 이 책의 「후기」에서 "이제는 '자이니치를 살아간다'는 등 서로 주고받는 말에서 '자이니치'는 관용어가 된 느낌이나 30여 년 전 내가 '자이니치'의 실존이라든가 자이니치를 사는 젊은 세대들의 독자성 따위를 말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고독한 것이었으며, 상도를 일탈한 망언으로 간주되어 조직적인 지탄을 받아 꺽이는 것이었다"[10]고 말했다. '자이니치'라는 말은 일찍이 김시종이 사용했던 '자이니치를 살아간다'는 말에서 기인하여 재일코리안 젊은 세대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부표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재일코리안 신세대가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해 전유한 것은 아니었다. 1961년생인 재일코리안 3세 강신자는 1987년에 『지극히 평범한 재일한국인(ごく普通の在日韓国人)』(朝日新聞社)이라는 책을 펴내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의 제목에는 '자이니치'라는 말이 없고 '재일한국인'이 명시되어 있다. 이 저서는 아사히저널상도 수상했는데, 재일한국인으로서 일본인과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재일한국인 사회와 일본인 사회 사이에 끼여 사는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 태어난 딸에게 인간이 지닌 "차별하는 마음"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차별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주문하고 있다.[11] '지극히 평범한 재일한국인'의 모습을 묘사한 이 책은 1980년대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사회에서 정주자로서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신자는 '재일한국인'이라는 '한국' 국적을 명시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조국'과의 연결고리에서 찾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자신을 둠으로써, 역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다. '자이니치'라는 말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강신자의 글이 내포하는 것은 일본 '정주자'로서의 재일코리안의 모습이다. 『계간 삼천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0) 金時鐘(2001)『「在日」のはざまで』平凡社, p.455.
11) 姜信子(1987)『ごく普通の在日韓国人』朝日新聞社, p.21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80년대에 '자이니치'라는 용어가 대두하는 상황은 재일코리안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일상인으로서 '정주자' 의식을 갖게 된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1세대의 '조국지향'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조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이니치를 살아간다'는 의식이 싹 튼 점이다. 이 두 요소는 서로 미묘하게 대치하면서 초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1990년대『계간 청구』와 '자이니치'

『계간 삼천리』가 폐간된 후 그 뒤를 이어 창간된 잡지가『계간 청구(季刊青丘)』이다. 1989년 9월에 창간되어 1996년 5월까지 전체 25호가 발행되었다. 편집위원으로는『계간 삼천리』에서 활약한 이진희, 강재언, 김달수와 재일코리안 2세에 해당하는 강상중, 안우식, 문경수, 위양복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2,3세가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세대교체의 위상을 나타내는『계간 청구』는 '냉전하의 분단 45년', '청산하지 않은 전후책임', '태평양 전쟁과 조선' 등, 일본과 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는 한편, 무로마치, 에도시대의 조선과 일본의 교류를 소개하는 등 폭넓은 시야에서 한일 관계를 파악하려는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신문 만화를 소개하는 등 조선반도의 현재 정세를 전함과 동시에 시리즈 르포 '자이니치를 살아간다'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재일코리안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12]『계간 삼천리』와 마찬가지로 한일관계의 역사성과 현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간호의 주제는「쇼와시대를 생각한다」이다. 창간당시 막을 내린 쇼와시대를 회고하며 재일코리안의 현실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계간 청구』역시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특집으로 간간히 다루었다. 1992년 8월에 간행된 제13호는 특집「재일한국 · 조선인」, 제20호는「전형기의 재일한국 · 조선인」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계간 삼천리』에서 사용되었던 '재일조선인'이란 용어 대신 '재일한국 · 조선인'이란 호칭

12)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在日コリアン辞典」編纂委員会編(2010), 앞의 책, p.86. 이 항목의 필자는 総谷智雄.『계간 청구』를 개괄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나승희(2007)의「재일 한인 잡지의 변화의 양상과『청구』의 역할」(『일어일문학』36, 대한일어일문학회)이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민주화와 국제적 고양으로 1990년대부터 일본의 공적 담론공간에서는 '재일한국인'이란 명칭과 '在日韓国・朝鮮人'이라는 표기가 일반화"[13]되었는데, 이에 부합해 『계간 청구』도 '재일한국・조선인'의 호칭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3년 2월에 간행된 제15호는 「지역을 살아가는 한국・조선인」이란 특집을 꾸미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일한국・조선인'이 아니라 '재일'이 빠진 '한국・조선인'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2월에 발행된 제21호부터 11월에 발행된 제24호까지는 「'자이니치' 50년」을 특집으로 꾸미고 있다. 이로써 『계간 청구』에서 '자이니치'란 말이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자이니치'가 재일코리안을 가리키는 명칭은 아직 아니었다. 제21호에는 김달수, 박경식, 양영후, 이진희 등 1세대들 간에 이루어진 「좌담회 '자이니치' 50년」을 싣고 있으나, 이들은 재일코리안을 '자이니치'가 아닌 '재일조선인'으로 부르고 있다. 이진희는 서두에서 "일본 패전 후 50년을 맞이했으나, 요사이 10년 동안에 세계정세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재일조선인 사회도 대폭 세대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험도 포함해 1세대의 입장에서 패전 후 재일조선인을 되돌아보겠습니다"[14]라고 말하고 있다. 이 좌담회는 4회 연속으로 진행되었는데, 2회에서는 강재언, 박경식, 양영후가 「조총련 해방에서 귀국사업」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3회에서는 김덕환, 배중도, 문경수가 「1970년부터」를, 4회에서는 김경득, 양등자, 윤조자, 강상중이 「1995년 현재에서 미래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회에 이르러서는 아직 재일코리안을 가리키는 호칭이 '재일조선인'으로 통용되나, 간혹 '자이니치'가 사용되기 시작해, 4회에서는 강상중이 서두에서 "연속좌담회는 이번에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자이니치'의 장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해방 50년의 '자이니치'를 되돌아보고 그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라며 '재일조선인'이라는 명칭 대신에 '자이니치'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4회 좌담회에서 김경득은 '재일조선인', 강상중은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호칭도 병용하고 있으나, '자이니치'라는 호칭 사용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15]

13) 조관자(2011), 앞의 논문, p.2.
14) 金達寿 외(1995) 「座談会・「在日」50年を語る」『季刊青丘』21号, p.6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96년 3월에는 『계간 청구』의 종간에 앞서 그동안 『계간 청구』에 실렸던 몇 편의 글과 앞서 언급한 4회 연속 좌담회를 모은 『'자이니치'는 지금』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자이니치'라는 호칭이 『계간 청구』에서 싹터 본격적으로 단행본의 제목에 등장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행본 이전에도 김석범의 『'자이니치'의 사상』(1981), 다케다 세이지의 『'자이니치'라는 근거』(1985), 김시종의 『'자이니치'의 틈바구니에서』(1986), 윤건차의 『'자이니치'를 살아간다라는 것은』(1992)과 같이 재일코리안 필자들은 저작물에 '자이니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 저서에서 '자이니치'라는 말은 아직 '자이니치를 살아간다'라는 보통명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재일코리안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무르익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자이니치'는 지금』이라는 책에 명시된 '자이니치'는 '재일조선인은 지금' 혹은 '재일한국 · 조선인은 지금'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듯이 '재일조선인', '재일한국 · 조선인'을 대체하는 명칭이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자면 재일코리안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재일조선인'에서 '재일한국 · 조선인'으로 사용하다가 1990년 후반에 이르러 '자이니치'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이니치'라는 말이 특집 제목으로 사용되기 이전인 제20호까지의 『계간 청구』에 실린 글의 타이틀에 '자이니치'라는 말이 사용된 예를 들어보자.

〈표3〉 『계간 청구』에서 '자이니치'가 제목에 사용된 예(연도순)

발행년월/호	필자	표제	특집 제목
1992.2/11	鄭容順	「在日」からのメッセージ	文禄の役から四百年
1992.5/12	李敬宰	「在日」間の統一から	いま朝鮮半島は
1992.8/13	姜尚中	「在日」の新たな基軸を求めて	在日韓国・朝鮮人
1992.12/14	梁登子	ルポ・在日を生きる	朝鮮王朝の五百年
1993.2/15	姜尚中	「在日」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求めて	地域に生きる韓国・朝鮮人
1993.2/15	梁登子	東京・三河島「在日」風景	地域に生きる韓国・朝鮮人
1993.2/15	金栄	ルポ・在日を生きる	地域に生きる韓国・朝鮮人
1993.11/18	金栄	ルポ・在日を生きる	いまなぜ戦後報償か

15) 金敬得외(1996) 「座談会・「在日」50年を語る 4 現在から未来へ」『「在日」はいま、』 青丘文化社, pp.224-24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94.2/19	文真弓	金鶴泳と在日三世の私と	在日朝鮮人文学の現在
1994.2/19	李美子	在日一世詩人とわたし	在日朝鮮人文学の現在

『계간 청구』 제20호까지 게재된 글의 타이틀에서 '자이니치'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 예는 그리 많지 않다. 1989년 11월 제2호부터 1991년 11월 제10호까지 시리즈로 '르포・자이니치를 살아간다'와 '지금 자이니치는'이 연재되었다. 그 후 '르포・자이니치를 살아간다'는 제14호와 제15호, 제18호에 게재되었다. 『계간 청구』에서 '자이니치'라는 말을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필자는 강상중이다. 제13호와 제15호에 두 편의 글은 '자이니치'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본격적 다루고 있다. 강상중의 글이 실린 제13호와 제15호 모두 '재일한국・조선인'의 아이덴티티를 특집으로 꾸미고 있다. 강상중은 「'자이니치'의 새로운 기축을 추구하며」에서 '저항'과 '참여'라는 키워드로 일본의 '국제화'에 포섭되어 안이한 '정주'를 꿈꾸지 않고, 일본인과 동등하게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이니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역'을 거점으로 그 지역에 저항하면서도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조국과 관계를 맺는 '자이니치'의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다"[16]고 역설하고 있다. 「'자이니치'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해서」라는 글에서는 일본의 '국제화'가 '일본=국가화'로 예속되는 점에 유념하여 '지역'과 '탈국가화'의 사고를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로써 "복합적이며 유연한 아이덴티티가 열릴 가능성에서 '자이니치'의 장래를 추구해야 한다"[17]고 말했다. 여기에는 '재일한국・조선인'의 아이덴티티를 일본의 지역사회와의 상호 작용에서 파악하는 시선이 나타나 있다. 특히 '일본'이라는 국가 단위보다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일원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1993년에 약 9천명의 재일코리안이 모여 살았던 가와사키시에 '가와사키 후레아이관(川崎ふれあい館)'을 개설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꾀했던 배중도는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추구해서」라는 글에서 "후레아이관과 그 운영형태가 가지는 중요성의 의미는 재일한국・조선인이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

16) 姜尚中(1992) 「「在日」の新たな基軸を求めて」『季刊青丘』第13号, p.47.
17) 姜尚中(1993) 「「在日」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求めて」『季刊青丘』第15号, p.3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실이다. 바꿔 말하면 재일한국 · 조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사회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점이다"[18]라고 말하고 있다. 『계간 청구』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일코리안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언급되었다. 김경득도 좌담회에서 "일본의 국제화의 흐름"을 지적하면서 "재일조선인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이와 동시에 본국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플러스로 해서 국민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적 · 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이유도 희박해집니다"[19]라고 말했다. 『계간 청구』에서 이와 같이 재일코리안을 일본의 국제화 · 지역사회와 관련해 논하는 것은 1970년대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1980년대 후반에 일본사회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국제화'가 진행된 점, "인구이동이 국경을 넘어 광역화, 대량화되면서 일본 도시의 지역사회 내실을 크게 바꾸었다"[20]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화' 흐름을 타고 쓰여진 책이 1999년에 간행된 박일의 『<자이니치>라는 삶의 방식:차별과 평등의 딜레마』이다. 오사카시립대학 교수로서 재일코리안 3세인 박일은 서장에 「자이니치가 바꾸는 일본사회」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자이니치'라는 호칭보다는 '재일코리안'이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역도산을 비롯하여 신격호, 이희건, 손정의 등 일본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은 대표적인 재일코리안들을 조망했다. 일본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재일코리안의 모습과 함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민족'을 학습하기 위해 본명 사용 및 한국어 공부 등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현상도 앙케이트 조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책 표지에 장식된 문구대로 『<자이니치>라는 삶의 방식:차별과 평등의 딜레마』는 "일본이라는 시스템과 싸운 손정의—그들의 반세기를 통해 '조국'과 '민족'의 의미를 묻고 일본사회에 '내재하는 국제화'를 되짚고 있다".[21] 앞서 언급한 『'자이니치'는 지금』의 「간행사」에는 "1세들에게 패전 후 50년은 망향의식에 사로잡히면서 분단된 두 개의 조국과 자이니치의 틈바구니에서

18) 裵重度(1993)「共に生きる地域社会をめざして」『季刊青丘』第15号, p.61.
19) 金敬得외(1996), 앞의 책, p.236.
20) 文京洙(1995)「高度経済成長下の在日朝鮮人」『季刊青丘』第22号, p.52.
21) 朴一(1999)『<在日>という生き方』講談社, 表紙.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계속 고뇌한 세월이었다. 그리고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2,3세는 일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양화하는 가치관 속에서 아이덴티티를 필사적으로 탐구해야만 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사회와 대면하며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자이니치의 의식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22]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지역사회' 속에서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표출되었다. 재일코리안은 '일본에 거주한다'는 보통명사 '자이니치' 의미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인 일본거주의 의미를 탈색한 '정주자'의 처지를 인식했고, 나아가 '자이니치'라는 용어에 '조국'과의 관련성을 투영시켰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강상중이 '자이니치'를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중심 인물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000년대에 들어 그가 '자이니치'의 대표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시대를 선도한 그의 '자이니치'의 사상이 일찍이 돋아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Ⅳ. 2000년대 '자이니치'라는 자기규정과 일본사회

2000년대에 접어들어 '자이니치'를 둘러싼 담론은 일본의 국제화 속에서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에서 '자이니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스스로를 어떤 자라고 말할 것인가로 옮아갔다. '나는 어떤 자인가'라는 질문은 이전부터 재일코리안에게 줄곧 있어왔지만, 2000년 이후에 '자이니치'라는 호칭 사용은 자기규정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앞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자이니치'라는 말이 재일코리안의 저술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도 2000년대부터이다. 특히 2004년 강상중의 저서는 오로지 '자이니치'라는 한 마디로 타이틀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책 제목에서는 '자이니치'를 수식했던 특정 부호가 사라졌고, 책 표지는 자신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마치 '강상중은 자이니치이다'라는 말을 공표하고 있는 듯하다. 같은 해에 발행된 정대균의 저서에서

22) 李進熙외(1996) 『「在日」はいま』 青丘文化社, p.25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 '자이니치'에 강조부호가 사라졌다. 또한 2008년에 발행된『계간 동북학』제17호 특집은 '자이니치라는 <희망>'을 타이틀로 내걸고 있는데, 이 제목은 물론 여기에 수록된 몇 몇 재일코리안의 글에도 '자이니치'에 특정부호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최길성은「자이니치를 생각한다」라는 글의 서장 타이틀을「자이니치란」으로 붙이고 서두에서 "재일한국 · 조선인(이하 '자이니치'라고 한다)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상황을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23]라고 쓰고 있다. '재일한국 · 조선인'이란 호칭 대신에 앞으로는 '자이니치'를 쓰겠다는 괄호의 각주는 고유명사 '자이니치'가 '재일한국 · 조선인'의 별칭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재일코리안에게 '자이니치'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자이니치'라는 말에 대해 재일코리안 2세이자 불문학자인 현선윤은 2002년에 간행된『'자이니치'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자이니치'라는 말은 우리들을 둘러싼 일본인을 향해 말하는 자기주장이 아니다. 우리들은 전적으로 일본인으로부터 모멸을 받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그 나름의 자유와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정립하려고 할 때, 그 관념을 받쳐줄 말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실체적인 것을 넘어선 적은 없다. '조국 조선'이 그 형태로써 떠올랐다. 그 '조국'에 눈을 돌리는 동안 그 시선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생긴 말이 '자이니치'이다. 우리는 조선인이지만 자이니치 고유의 삶을 강요받아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자기주장이 이 말에 담겨있는 것이다.[24]

'자이니치'는 일본인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 발화된 것이 아니라 재일코리안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를 되묻는 가운데 생성된 용어이다. 이 사실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자이니치'는 어떤 형태로든 2002년의 시점에서 재일코리안의 "자기주장"의 한 형태로써 정위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재일코리안은 일본인에게는 '한국인'으로 비치며, 한국인에게는 일본에 거주하는 '자이니치'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중성을 안고 일본에서 살면서 '한국인/조선인'이라는 말을 지운 '자이니치'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명명한다. 이

23) 崔吉城(2008)「在日を考える」『季刊東北学』第17号, 東北文化研究センター, p.35.
24) 玄善允(2002)『「在日」の言葉』同時代社, p.1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로써 '자이니치'는 단지 '일본에 거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재일코리안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로 떠올랐다.

2000년대에는 1980년대의 『계간 삼천리』, 1990년대의 『계간 청구』와 같은 재일코리안 사회를 조국 혹은 일본과의 관련성에서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재일코리안 발행의 종합잡지가 발간되지 못했다. 대신 『계간 삼천리』나 『계간 청구』에서 활약하던 강재언, 강상중 등 재일코리안 지식인들이 '자이니치'를 적극적으로 전유하면서 재일코리안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창출하였다. 그 가운데 이제까지 '자이니치'라는 용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구사한 강상중이 단연 돋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대균도 강상중과는 다른 자세에서 '자이니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아이덴티티의 구축에 동참했다.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이지만 '자이니치'를 공유한다.[25] 2001년에 정대균은 『재일한국인의 종언』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간행했다. 이 책 제2장은 「자이니치의 특이한 상황」이란 제목을 달았다. '특이한 상황'이란 "자이니치는 지금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면 일본인과 거의 다르지 않는 권리·의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 국적을 유지한 채로 지낸다"[26]는 상황을 가리킨다. 재일코리안에서 일본인으로 귀화한 정대균의 처지에서 말하는 이 주장은 2004년에는 『자이니치 · 강제연행의 신화』, 2006년에는 『자이니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저서로 이어진다. 이 두 저서의 '자이니치'라는 말에는 특정 부호가 붙어 있지 않다. 2004년에 출판된 강상중의 『자이니치』와 마찬가지로 '자이니치'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임을 나타낸다.

정대균과 달리 강상중은 『자이니치』에서 '조국'을 강조한다. 『자이니치』의 한국어판인 『재일』의 서문에서 강상중은 "'조국'이라 해도 한국은, 나와 같은 2세에게 있어 곧바로 '조국'일 수 없다. 태어나고 자란 산천 풍경과 자연의 감촉, 그리운 고향 온기 등, 말하자면 '조국'인 향토 냄새와 촉감의 기억이 나와 같은 2세에게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국'은 어디까지나 가

25) 정대균은 2000년 6월호 『正論』에 「見せかけの怒り 梁石日 姜尚中 辛淑玉批判」를 발표하여 강상중과 양석일, 신숙옥 등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 저술된 『姜尚中を批判する「在日」の犠牲者性を売り物にする進歩的文化人の功罪』(飛鳥新社, 2011, p.18)에서는 강상중을 '자이니치'의 희생자 성격만을 내세워 '자이니치'를 상품화하는 자로 몰아세웠다.

26) 鄭大均(2001) 『在日韓国人の終焉』 文芸春秋社, p.3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깝고도 먼 존재였다"고 말한다. 이어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이제 많은 1세들이 타계하여, 재일에서 흙내 나는 조국의 이미지는 사라지려 하고 있다. 이따금 그에 대한 애석의 정이 머리를 쳐들 때, 나는 잊혀져가고 있는 과거와 사람들을 기억에 붙들어 놓고 싶었다. 더구나 그에 대한 향수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재일의 마음자리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27]고 자전적인 에세이를 쓰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다. 강상중에게 '자이니치'는 요원한 '조국'과 맞닿는 근거이자 자기 근원의 아이덴티티를 더듬는 말이기도 하다. 2008년에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와 함께 재일코리안 1세들을 취재하여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엮어 출판한 『자이니치 1세의 기억(在日一世の記憶)』도 이러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그가 '조국'을 근대 이후에 탄생한 '국민국가'에 수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아이덴티티는 '국가'에 흡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덴티티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소급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보며,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운명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개개인의 아이덴티티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한다.[28]

이와 같이 '자이니치' 담론은 '자이니치'라는 호칭 사용에서부터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자이니치'의 등장은 아이덴티티가 본질적으로 고정되고 결정된 것이 아님을 일러준다.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즉 재일코리안을 둘러싼 일본사회의 '국제화' 등이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 형성의 커다란 한 축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이니치'는 재일코리안 내부에서 '자기주장'의 일환으로 재일코리안들이 전유하는 형태로 등장했으나, 2000년에 들어 이 말은 일본사회나 한국사회에서 재일코리안을 표상하는 말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을 가리키는 말로는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 그리고 '재일코리안'이라는 호칭도 있다. 여기에 '자이니치'는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하라지리 히데키는 1998년에 간행된 『'자이니치'로서의 코리안』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7) 강상중, 고선애 옮김(2004) 『재일』 삶과꿈, pp.22-23.
28) 고스기 아스시 외, 황영식 옮김(2007) 『아시아의 신세기3 정체성 해체와 재구성』 한울, p.34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이 책은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 '자이니치'라는 호칭 이외에는 재일한국 · 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코리안 등의 호칭이 있다. 까다로운 점은 '자이니치'라고 하면 일시적 체재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일본사회의 구성 멤버가 아니라 '바깥 사람'='외국인'이라고 생각되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자이니치'란 조선반도 출신자 및 그 자손들이지만 일본에 영주할 의사를 지닌 사람들로 단지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외국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자이니치'는 국적이 일본이 아니어도 일본사회의 멤버이다.[29]

여기서 지적하는 '자이니치'가 "일시적 체재"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재일코리안은 '자이니치'라는 말로 "일시적 체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시적 체재"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 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자이니치'가 등장한 것은 재일코리안의 세대 변화와 더불어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려는 모색과 관련을 맺고 있다. '국제화'라는 조류 속에서 일본에 새롭게 '정주'하려는 재일코리안의 의지가 이 용어에 담겨있었다. 그러나 '자이니치'는 재일코리안들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인에게는 "일시적 체재"라는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자이니치'를 스스로 전유하는 재일코리안과 바깥에서 재일코리안을 바라보며 '자이니치'를 사용하는 일본인 사이에는 엄연한 간격이 자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시적 체재"를 빗대어 일본에서는 '반한(反韓)' 감정에 편승해 '자이니치'에게 공격을 가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일시적 체재"를 강조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당치도 않는 주장이 2000년에 접어들어 나타났다. 일본의 한류 붐에 찬물을 끼얹듯 『혐한류』라는 만화책을 간행해 일본사회에 '혐한류' 분위기를 유포시킨 야마노 샤린은 2006년에 출판한 『자이니치의 지도』에서 재일코리안을 비하하는 태도를 서슴치 않는다. 이 책은 초판에서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국민의 이야기-코리안 타운 탐방'이라는 기이한 부제를 달고 있었다. 2009년에 발매된 문고판 서문에서 야마노 샤린은 "목하 정치정세를 보면 외국인 참정권 부여 법안의 성립이 드디어 현실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30]라고 쓰고 있다.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재일코리안에 대한 멸시가 고개를 쳐든 것이다. 그는 문고판 후기

29) 原尻英樹(1998)『「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講談社, p.3.
30) 山野車輪(2009)『在日の地図』ぶんか社, p.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재일한국·조선인이 앞으로 나갈 길은 크게 나누어 현상유지, 귀화, 귀국, 제3국으로 이주라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수한 외국인으로서 우대받아 현상유지'를 희망하든가, '귀화해서 일본인이 된다'라든가 양자 선택만이 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상유지, 귀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들이 일본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상, 자이니치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국으로의 귀국' 또는 '일본, 조국 이외 제3국으로의 이주'하는 길을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한은, 일본과 자이니치 쌍방이 역사사실을 근거로 왜곡된 관계를 차분하게 시정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31]

책의 제목과는 달리 '자이니치'가 아닌 '재일한국·조선인'이란 호칭도 사용하면서 일본사회에서 재일코리안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역사사실"은 이를 왜곡한 일본 쪽에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연행" 등을 말하는 재일코리안 쪽에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자이니치'가 "특수한 외국인으로서 우대" 받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야마노 샤린은 2009년에 『만화 혐한류(マンガ嫌韓流)』4를 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자이니치' 비하에 매진하여 "역사사실"을 더 왜곡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이니치'에 대한 반감은 2007년에 발매된 『자이니치 특권(ザ・在日特権)』(宝島社)에서도 이어졌다.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는 그들이 '자이니치'를 통해 '한국인'이나 '조선인'의 국가성을 소거한다 해도 일본인 등 그들 바깥으로부터 더 국가주의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는 '자이니치'의 '자기주장'으로써만 확보되지 않는다.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는 그들 자신의 문제이지만 그들 바깥 상황과의 관계를 떠나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사회의 정치정세나 국제관계 등과 '자이니치' 표상은 연동한다.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자이니치'를 국가주의와 연계해 호도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재일코리안이 스스로를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호칭을 둘러싼 담론은 단지 자신들의 자기규정의 범위에만

31) 山野車輪(2009), 앞의 책, p.23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머물지 않는다. 외부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호칭을 둘러싼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는 유동하며 재구축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Ⅴ. 닫는 글: 국민국가 속 '자이니치'의 향방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자이니치'라는 말을 재일코리안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다. 1979년 5월에 발행된 『계간 삼천리』에 김석범이 「'자이니치'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실어 '자이니치'라는 용어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서 '자이니치'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되짚는 말이었다. 그리고 '조국'과의 연결 지점도 '자이니치'에 근거를 둠으로써 가능하다는 논지였다. 이후 재일코리안들은 누가 불러주기 이전에 스스로를 '자이니치'라고 규정했다. 이 때 '자이니치'는 단지 '한국인'이나 '조선인'이라는 '국적'을 상대화하는 의식에서만 이용되지 않았다. 재일코리안 1세대가 자기들이 태어난 '조국'에 망향 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강상중과 같은 2세대들은 '자이니치'를 통해 '조국'의 기억과 선을 이었다.[32] 그렇지만 '조선인'이나 '한국인'이라는 '국민국가'의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국가주의로만 귀속되는 아이덴티티와는 다른 복합적인 자기 위치를 설정하려 했다. 그러므로 1980년대에서 1990년에 이르러서 '자이니치'라는 호칭은 일본사회, 특히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유대관계를 맺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사용되었다. 국가체제로 지탱되는 일본사회에 흡수되지 않고 '자이니치를 살아간다'는 의식에서, 삶의 기반인 '지역'에 뿌리를 두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국제화와 더불어 논해지는 '정주화'에 경계하면서 국제화에 휩쓸리지 않는 '자이니치'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 '재일조선인'이나 '재일한국인'이 아닌 '자이니치'라는 호칭을 재일코리안 스스로 전유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00년에 접어들자 '자이니치'는 재일코리안들 사이에서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호칭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강상중의 『자이

32) '기억'은 "자기와 타자의 경계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덴티티의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細見和之(1991)『アイデンティティ/他者性』岩波書店, p.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니치』라는 자서전적 에세이의 출판으로 인해 '자이니치'라는 말에 붙은 특정한 의미가 탈색되면서 재일코리안을 지칭하는 '자이니치'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재일코리안 1세가 '망향의식'에 사로잡혀 '조국'과 관련을 맺는 방식과는 다르게 '조국'을 기억하며 '자이니치'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자기주장'과도 같은 측면에서, 강상중은 '자이니치'라는 말을 재일코리안의 명칭으로 부각시켰다. 강상중은 '자이니치'를 통해 일본의 '국가주의'에 맞서는 복합적인 아이덴티티를 추구했다. 그러나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혐한류'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자이니치'를 국가주의에 예속시키는 현상도 발생했다. '자이니치'의 '특권' 등을 주장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연동하는 것이었다. 재일코리안이 '자이니치'로 자신을 호명하는 것과는 다른 흐름에서 재일코리안의 외부에서는 '자이니치'를 '일시적 체재'로 바라보아 심지어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내뱉는 일본인도 나타났다. 나아가 강상중과 정대균 사이에서 쓰이는 '자이니치' 사용의 괴리에서 알 수 있듯이 재일코리안들 간에도 '자이니치'를 둘러싼 논란은 분분하다. 이와 같이 '자이니치'를 둘러싼 담론은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가 "주어지는 것, 어떤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 갈등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33]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도 '자이니치'라는 호칭을 재일코리안 스스로 전유했다는 사실, 이 명칭이 이제 그들을 규정짓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일코리안은 일본에서 '자이니치'라는 말로도 통용된다.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는 일본사회와의 상호작용 안에 있다. 이는 1996년에 간행된 강재언의 『'자이니치'로부터의 시좌』에 나타난 아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 재일조선인은 싫든 좋든 두 가지 삶의 방식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일본사회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스스로를 일본인과 닮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일본사회의 차별적 인식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온존되어 버린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국제화의 조류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인을 위해서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일본사회 속에서 조선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33) 이정우(2011) 『전통, 근대, 탈근대 소운 이정우 저작집』3 그린비, p.2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일본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부조리를 되묻는다. 이질적인 자들끼리 공생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다가오는 일본사회의 국제화, 그 의식의 국제화를 열어젖히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34]

여기에서는 ‘자이니치’가 아닌 “재일조선인”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책 제목에는 엄연히 ‘자이니치’라는 용어가 붙어있다. 강재언은 ‘자이니치’가 국제화되는 일본사회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한다. 강상중이 ‘자이니치’를 일본이나 조국에 대한 귀속이 아닌 일본에서 사는 ‘자이니치’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도, 이와 같이 일본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위치에 ‘자이니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2000년대부터 재일코리안이 스스로를 ‘자이니치’로 부르는 것은 ‘자이니치’가 뜻하는 ‘일본사회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단지 일본 정주자의 일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조국’과의 관련에서 파악하기 위한 전략도 있다. 그러나 ‘조국’은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국가 개념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이니치’는 ‘재일한국인’이나 ‘재일조선인’에서 ‘한국인’과 ‘조선인’의 이미지를 상대화한 호칭이 되는 것이다. 민족이나 국가 색의 소거는 ‘국민국가’인 일본을 상대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이니치’는 국민국가 단위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국민국가에 수렴될 수 없는 재일코리안이 지닌 아이덴티티의 복합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일본에 거주한다’는 의미인 ‘자이니치’의 처지를 명확히 직시하고, 나아가 ‘자이니치’는 어디에서 유래하여 ‘자이니치’가 되었는가를 기억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 간의 관계 안에서만 수렴될 수 없는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가 ‘자이니치’라는 호칭 속에 함의되어 있다. 이는 국가에만 매이지 않고 그러한 국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이니치’가 재일코리안에 의해서 생성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일코리안의 바깥에 있는 일본사회 일각에서는 ‘자이니치’를 다시 국가체제에 수렴시키려는 일면도 보인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자이니치’가 그대로 통용되는 사태와도 관련이 있다.

재일코리안 3세인 신숙옥의 가족사를 다룬 책이 한국에서 『자이니치, 당신은

34) 姜在彦(1996)『「在日」からの視座』新幹社, p.16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어느 쪽이냐는 물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2006년에 번역되었다. 이 책의 원제는 『鬼哭啾啾—「楽園」に帰還した私の家族』(2003년 출판)로 일본 책에는 '자이니치'라는 말이 담겨 있지 않다. 한국어 번역본에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도 아닌 '자이니치'가 제목으로 달린 것은 처음이다. 이후 재일코리안 1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진집이 2007년에 발간되었는데, 그 타이틀은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이다.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이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사회에서 통용되자 그대로 한국에 수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재일코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서도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재일코리안을 '재일동포' 혹은 '재일교포', '재일한인' 등으로 부른다(최근에는 '재일코리안(언)'이라는 말도 쓰인다). '자이니치'는 2000년 이후에 국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말을 유통시킨 것은 방송 매체였다. 2003년 3월 1일에서 2일까지 방영된 MBC 「심야스페셜」의 타이들은 <일본 속의 '자이니치' 제1부: 자이니치 3세 나는 누구인가/제2부: 수상한 외국인, 자이니치>였다. 같은 해 SBS에서 8월 15일에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타이틀에도 '자이니치'가 사용되어 <특집 젊은 재일동포 뉴 자이니치, 그들의 새로운 선택>이었다. KBS는 2006년 8월 17일에 방영한 「문화지대」에서 <신 자이니치>라는 제목을 붙여 재일코리안의 삶을 조명했다. '자이니치'에 '뉴'라든가 '신'이 붙는 현상까지 국내에서 발생했다. 일본에서도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용어이다. 그러나 '자이니치'라는 말이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이 전용한 '자이니치'의 의미와 동일한 개념인지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국내의 '자이니치' 표상은 "'자랑스러운 한민족'으로서의 재일동포", "민족적 순수자로서의 '자이니치'", "재발견된 '우리'로서의 재일조선인"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35]

2009년 KBS1 TV에서 방영한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자이니치, 고민하는 영혼>은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이 일본에서 추성훈, 정대세, 양방언, 강상중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8월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선정이유는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의 현

35) 조경희(2007) 「한국사회의 '재일조선인' 인식」『황해문화』57, pp.57-7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실을 되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위상을 어떻게 높여야 할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36]는 데에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정운은 '자이니치' 네 명에게 공통으로 당신은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을 받은 네 명은 자연스럽게 '한국인'이라고만은 답하지 않았다. 이 얄궂은 질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자이니치'라는 말이 함의하는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이니치' 소수자를 향한 한국인 다수자의 '한국인'이냐라는 물음은 '자이니치'라는 담론이 재일코리안 내부에서 촉발되었으나, 결국은 외부를 통과하면서 다시 국민국가의 영역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이니치'라고 스스로 호명한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는 그들의 '자기규정'과 일본이나 한국사회라는 바깥의 장들과 갈등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생성·변모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현재 '자이니치'라는 명칭을 에워싸고 있는 가장 큰 자장은 국민국가 이데올로기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강상중, 고선애 옮김(2004)『재일』삶과꿈, pp.22-23.
고스기 아스시 외, 황영식 옮김(2007)『아시아의 신세기3 정체성 해체와 재구성』한울, p.342.
서경식, 김혜신 옮김(2006)『디아스포라 기행』돌베개, p.16.
이정우(2011)『전통, 근대, 탈근대 소운 이정우 저작집』3 그린비, p.24.
조경희(2007)「한국사회의 '재일조선인' 인식」『황해문화』57호, pp.57-74.
조관자(2011)「'민족주체'를 호출하는 '재일조선인'」『일본학』32, 동국대학교일본학연구소, p.196, p.201.
최범순(2009)「『계간 삼천리』(季刊三千里)의 민족정체성과 이산적 상상력」『일본어문학』41, 한국일본어문학회, p.407, p.441.

李進熙외(1996)『「在日」はいま』青丘文化社, p.250.
姜尚中(1992)「「在日」の新たな基軸を求めて」『季刊青丘』第13号, p.47.
姜尚中(1993)「「在日」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求めて」『季刊青丘』第15号, p.34.

3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95(검색일:2011.11.0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姜信子(1987)『ごく普通の在日韓国人』朝日新聞社, p.218.
姜在彦(1987)「「在日朝鮮人」であることの意味」『季刊三千里』第五十号, p.47.
姜在彦(1996)『「在日」からの視座』新幹社, p.160.
金敬得외(1996)「座談会・「在日」50年を語る 4 現在から未来へ」『「在日」はいま』青丘文化社, pp.224-244.
金石範(1979)「「在日」とはなにか」『季刊三千里』第十八号, p.35.
金時鐘(2001)『「在日」のはざまで』平凡社, p.455.
金達寿 외(1995)「座談会・「在日」50年を語る」『季刊青丘』21号, p.62.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在日コリアン辞典」編纂委員会編(2010)『在日コリアン辞典』明石書店, p.86.
崔吉城(2008)「在日を考える」『季刊東北学』第17号, 東北文化研究センター, p.35.
鄭大均(2001)『在日韓国人の終焉』文芸春秋社, p.33.
鄭大均(2011) 『姜尚中を批判する「在日」の犠牲者性を売り物にする進歩的文化人の功罪』飛鳥新社, p.18.
朴一(1999)『<在日>という生き方』講談社, 表紙.
原尻英樹(1998)『「在日」としてのコリアン』講談社, p.3.
文京洙(1995)「高度経済成長下の在日朝鮮人」『季刊青丘』第22号, p.52.
玄善允(2002)『「在日」の言葉』同時代社, p.16.
裵重度(1993)「共に生きる地域社会をめざして」『季刊青丘』第15号, p.61.
細見和之(1991)『アイデンティティ/他者性』岩波書店, p.12.
山野車輪(2009)『在日の地図』ぶんか社, p.3, p.237.
尹健次(1992)『「在日」を生きるとは』岩波書店, p.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95(검색일:2011.11.05)

❖ 투고일 : 2011.12.31
❖ 심사일 : 2012.01.27
❖ 심사완료일 : 2012.0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